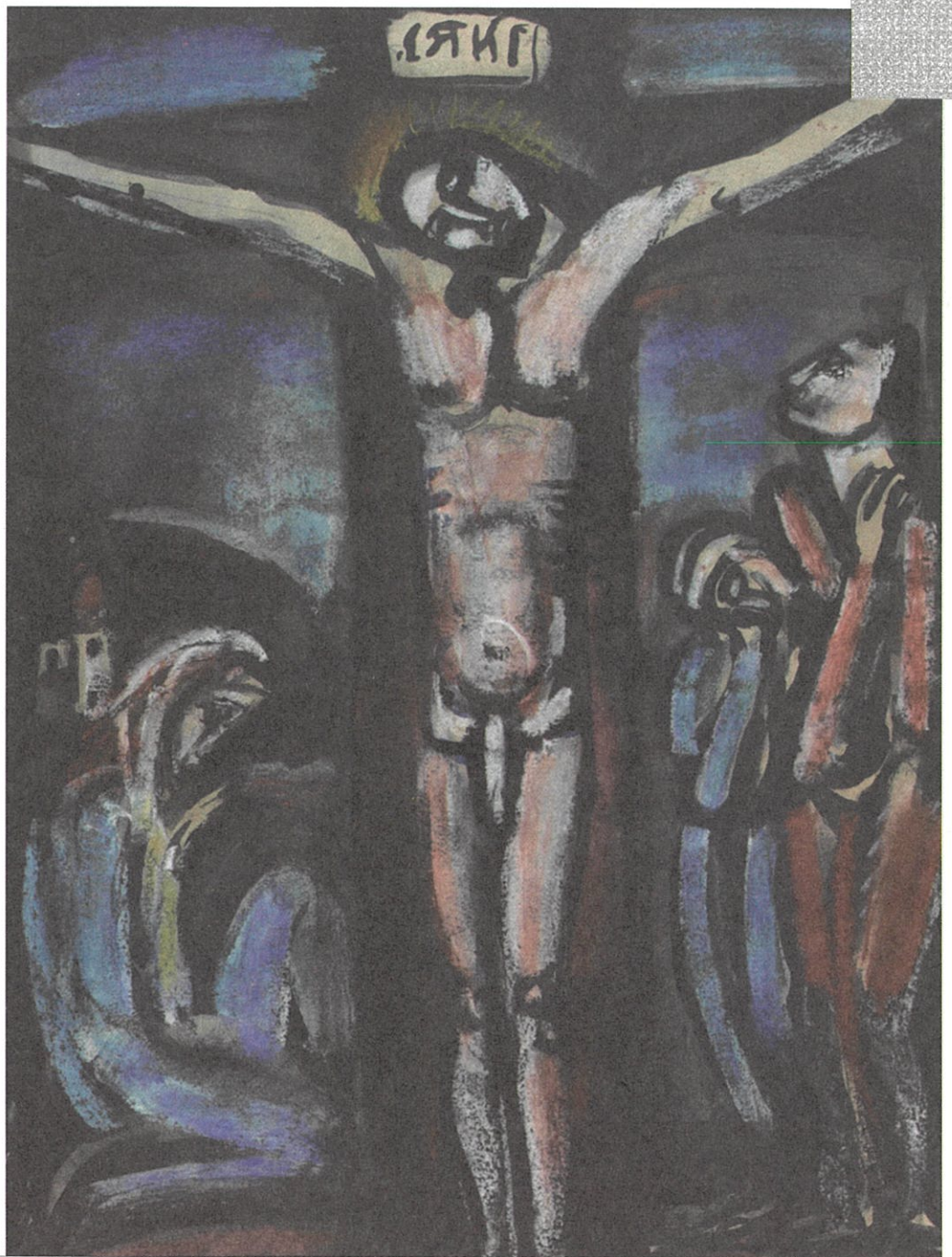


제2558호
2025년 5월 18일(다해)

부활 제5주일

서로 사랑하여라

조르주 루오
(Georges Rouault, 1871-1958)
1923-29, 판화에 파스텔과 먹
59x42.6cm
국립근대미술관, 프랑스 파리



입당송 | 시편 98(97),1-2 참조

주님께 노래하여라, 새로운 노래. 주님이 기적들을 일으키셨네.
민족들의 눈앞에 당신 정의 드러내셨네. 알렐루야.

제1독서 | 사도 14,21-27

화답송 | 시편 145(144),8-9,10-11,12-13ㄱ,ㄴ(◎ 1 참조)

◎ 저의 임금이신 하느님, 영영 세세 당신 이름을 찬미하나다.
(또는 ◎ 알렐루야.)

○ 주님은 너그럽고 자비하시며, 분노에 더디시고 자애가 넘치시네.
주님은 모두에게 좋으시며, 그 자비 모든 조물 위에 내리시네. ◎

○ 주님, 모든 조물이 당신을 찬송하고, 당신께 충실한 이들이 당신을 찬미하나이다.
당신 나라의 영광을 노래하고, 당신의 권능을 이야기하나이다. ◎

○ 당신의 위업과 그 나라의 존귀한 영광, 사람들에게 알리나이다.

당신의 나라는 영원무궁한 나라, 당신의 통치는 모든 세대에 미치나이다. ◎

제2독서 | 묵시 21,1-5ㄴ

복음환호송 | 요한 13,34 참조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

복음 | 요한 13,31-33ㄱ,34-35

영성체송 | 요한 15,1,5 참조

주님이 말씀하신다. 나는 참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알렐루야.



인만희 마누엘 신부 | 글라렛 선교 수도회

사랑은 선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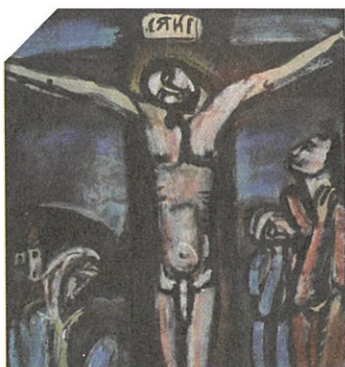
오늘 복음에서 주님은 새 계명을 주시며 서로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제가 선교사로 한국에 처음 왔을 때가 기억납니다. 한국말을 전혀 모르는 상태였지만 사람들을 만나면 누가 저에게 호의가 있는지, 별로 관심이 없는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었습니다. 어린아이들도 엄마가 자신을 사랑하는지 아닌지 금방 알아차립니다. 모두가 쉽게 느낄 수 있는, 모두가 잘 아는 이 사랑을 주님께서는 왜 새 계명으로 주셨을까요? 사랑은 단순히 느낌과 감정의 세계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라면 의식적으로 해야 할 선택이며 우리에게 주어진 새 계명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랑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요한 13,34)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의 법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은 먼저 이 사도 학교에 입학해야 합니다. 스승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그분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배우는 것입니다. 어쩌면 모든 그리스도인은 평생 주님의 학교를 졸업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의 삶을 살려고 해도 그분이 보여 주신 만큼 사랑할 수는 없을 테니까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감정의 차원에서 바라본다면 상처 준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제자는 사랑과

용서를 삶의 법칙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기에 사랑을 선택합니다. 우리는 경험을 통해, 누군가를 미워하게 되면 자신 또한 병들게 됨을 압니다. 미움이 내 안에 스며들어 독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만 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왜 사랑을 계명으로 주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사랑의 법은 결국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사랑의 법은 머리가 아니라 가슴으로 배우는 것입니다.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누군가를 마음 깊이 사랑하기 위해서는 그가 어떤 존재인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듯 인간은 ‘하느님의 모상대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고, 그를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것은 그의 일부분일 뿐입니다. 그러기에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도 하느님 모상대로 만들어진 존재임을 기억하고 인정해야(1) 하겠습니까.

모든 그리스도인은 사랑의 선교사입니다.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합시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을 보고 너희가 내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요한 13,35) 이 세상에 주님을 선포하기 위한 다른 쉬운 방법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사랑이 되어 준, 그분의 삶과 사고방식을 따르는 것뿐입니다.

“주님, 당신을 세상에 드러내 보여 줄 수 있도록 우리 삶의 중심에 계시옵소서.”



서로 사랑하여라

성화 해설

루오는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미세레레(Miserere) 판화를 구상합니다. 미세레레는 ‘miserere mei Deus(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소서.)’의 첫 단어입니다. 판화는 총 58점으로 제작된 연작이며, 이 그림은 31번째 작품인 ‘서로 사랑하여라’ 판화에 채색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랑을 요청하는 이 말씀을 제자들의 마지막 식사에서 하셨는데, 화가는 작품을 통해서 십자가 아래에 있는 이들에게 같은 요청을 합니다. 십자가 아래는 슬픔과 울부짖음, 괴로움이 가득하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면 하느님께서 곧 영광스럽게 하실 것입니다.

오주열 안드레아 신부 | 삼양동(선교)성당 주임

다른 생명으로부터 배우기



이경자 안나 | 소설가

눈이 쌓이고 차가운 바람이 불고, 그런 날씨에도 절기에 맞춰 푸른 생명들이 눈 덮인 흙 속에서 뽀족이 순을 틔우고, 그리고 메마른 나뭇가지에선 꼭 여드름 같이 보이는 움을 틔우는 걸 바라보면 새삼 눈물겹도록 경이롭습니다.

저도 엄마가 돼서 아이를 낳고 키울 때가 있었지만 그때 저의 인간 실존으로서의 열등감, 분노 따위가 한꺼번에 솟아올라 사람 생명의 경이로움에 눈물겨울 틈도 없었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나 제가 하고 싶었으되 하지 못했던 것들을 아이들에게 마구 투사하는 것, 엄마로서 제가 저지른 죄 중에 가장 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벌써 중년의 나이에 접어들었지만 이렇게 세월이 흘러가는 동안, 자식들에게 용서도 많이 빌곤 했습니다. 그리고 제 잘못의 원인에 대해 변명하고 이해받기를 바라기도 했습니다. 이제 아이들은 제 손에서 떠난 지 오래.

빈손인 제게 새로운 생명이 왔습니다. 벌써 십여 년이 지났습니다. 길고양이입니다. 처음엔 고양이에 대해 아무 것도 몰랐습니다. 모르니까 사람인 저의 생활 경험만으로 고양이를 생각하고 판단하고 같이 살기 시작했습니다. 날이 가면서 고양이와 사람이 서로 다른 존재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고양이는 절대적으로 독립적이어서 사람의 욕구나 관습이나 가치관으로 행동하지 않는다는 것, 바로 이 점에서 저는 고양이를 스승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고양이는 많이 먹었거나 몸에 맞지 않은 걸 먹으면 다 토해서 몸을 비웁니다. 서로 질투하고 기분 나빠서 다투도 오래가지 않습니다. 곧 화해합니다. 함께 살면서 저는

고양이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데 고양이는 사람 말을 필요한 것만큼 습득합니다.

집사라고 불리는 사람 식구가 좋아지면 사랑을 아낌없이 표현합니다. 앞발로 좋아하는 사람의 몸 어디라도 꼭꼭 눌러 줍니다. 자다가 눈을 뗐을 때 제 머리맡이나 허리, 발치에 있는 고양이를 보면 가슴이 왈칵 뜨거워집니다. 제 물건이나 옷에 몸을 비비고 끌어안고 저를 느끼는 태도엔 정말 가슴이 녹아내릴 것 같습니다. 사랑받는다든 확인만으로도 고양이는 제 정신과 의사입니다. 제가 고양이를 길러주는 것 같다가도 어떤 땐 고양이가 저를 기른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고양이를 사랑하지 않았을 땐, 털이 날리고 옷에 붙고 그 털 때문에 침구를 바꿔야 하는 것이 엄청난 손실 같았지만, 지금은 고양이에게 받는 위안과 즐거움이 무엇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걸 압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 집에서 고양이가 저를 보살핀다고, 그렇게 말해도 괜찮습니다.

한컷 묵상

“사랑은 그 어떤 기적보다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확실히 보여주는 위대한 표징입니다.”

- 성 요한 크리소스토모



김현진 글라라 | 작가



가톨릭교리상식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최연준 사도요한 신부 | 사목국 기획연구팀

! 성모 마리아를 왜 공경하나요?



툴가의 성모
13세기, 작자미상, 목판에 템페라
트레타야코프 미술관, 러시아 모스크바

주님 부활의 기쁨을 기억하는 가운데 맞이한 5월을 교회는 ‘성모 성월’로 지냅니다. 그리고 이 아름다운 시기에 교회의 모든 구성원이 성모님을 공경하고 성모님의 모범을 따라 기도와 은총의 생활을 하도록 권고합니다.

가톨릭교회에 대해 올바르게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가톨릭이 성모님을 믿는 종교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가톨릭교회는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을 믿고 고백하며, 오로지 하느님께만 흠숭을 드립니다. 그 가운데 성모님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신 예수님의 어머니이자 구원의 협조자로 온 삶을 통해 신앙의 모범을 보여주셨기에 공경하는 것이지 믿음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이러한 구별은 기도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느님께서는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라고 기도를 드립니다. 하지만 성모 마리아를 비롯한 성인들에게 드리는 기도는 “저희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라고 끝을 맺으며 우리의 기도를 하느님께 전해달라고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어머니가 있습니다. 어머니라는 존재는 우리의 삶을 영위하는 출발점이며, 그 단어 안에는 생명을 양육하는 존재로서 자녀를 온전히 품어준다는 의미가 담겨있습니다. 십자가 위의 예수님

께서는 당신이 사랑하시던 제자에게 어머니를 가리키며 “이분이 네 어머니시다.”(요한 19,27)라고 말씀하셨고, 당신을 따르는 모든 이들에게 어머니를 선물하길 뿐만 아니라 어머니에게도 당신의 사랑하는 이들을 맡기십니다.

사실 성모님의 삶은 평범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루카 1,38)라는 응답을 통해 구세주를 잉태하셨던 성모님에게는 언제나 마음 속에 간직하고 꿈꿨던 되새겨야 하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루카 2,19 참조) 평생 하느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굳게 믿으셨던 성모님을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의 어머니라고 말씀해 주시며, 우리 역시 주님을 따르는 가운데 신앙의 여정을 더욱 편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어머니를 내어 주십니다. 그렇게 성모님은 모든 신앙인의 어머니가 되었고, 주님을 따르는 이들이 하느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십니다.

〈교회헌장〉 53항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마리아께서는 교회의 가장 뛰어나고 유일무이한 지체로서 또 믿음과 사랑 안에서 교회의 가장 훌륭한 전형과 모범으로서 존경을 받으시며, 가톨릭교회는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 자녀다운 효성으로 마리아를 가장 사랑하는 어머니로 받든다.”

한평생 주님과 함께하는 여정 가운데 모든 것을 마음속에 품고 기도하셨던 성모님처럼 우리도 그러한 겸손과 응답을 지니며 살아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신앙의 길에 때로 외로움과 어려움이 다가오더라도 그 여정에 도움 주고자 하시는 어머니와 함께 기도하며, ‘희망의 순례자들’로서 부활의 삶을 힘차게 걸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의 진보와 보수



방중우 야고보 신부 | 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 윤리신학 교수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선종 이후, 언론들은 앞다투어 교황님의 삶을 조명했습니다. 검소하고 겸손한 면모, 가난한 이웃들에게 지체하지 않고 다가갔던 교황님의 행보는 우리에게 다시금 여러 가지 울림과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불편한 단어가 눈에 띄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진보적’이었다.”라는 표현이었습니다. 또한 언론은 차기 교황을 논하며 과연 진보적인 교황이 선출될 것인가 보수적인 교황이 선출될 것인가를 가늠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진보적’이었을까요? 적어도 윤리와 정의의 문제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교황님께서는 “낙태는 살인입니다. 그리고 살인을 위해 의사를 고용한다면, 그것은 청부살인입니다.”(2018년 수요 일반 알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동성애자들에 대한 배려와 자비를 강조하셨지만 ‘동성 혼인’에 대해서는, “나는 교회의 아들입니다. 교회는 혼인이 남자와 여자 사이의 성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넘어서지 않습니다.”(2014년 기자회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교황님을 과연 ‘보수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교황님은 바티칸은행을 재정비했고, 무분별한 경제개발에 반대했으며 전쟁과 폭력, 환경 문제에 관심을 기울였고 여성들의 교회 내 역할을 확대하고자 다양한 시도를 하셨습니다. 이러한 교황님의 행적을 통해 다시금 질문해 봅니다. 교황님은 과연

보수입니까, 진보입니까? 어떠한 대답도 내릴 수 없습니다. 실제로 교회는 하느님의 계명과 교회의 가르침에 충실하다는 점에서 언제나 보수적이었으며, 사랑과 자비를 실천하는 것에는 진보적이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뿐만 아니라 앞선 모든 교황님들도 다양한 방식과 분야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교회의 핵심 진리를 소중히 여기는 한편, 적극적인 사회 변화를 일구고자 노력하셨습니다. 하느님의 가르침과 사랑과 자비, 세상의 변화는 이렇게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함께 움직입니다. “가난한 이들을 향한 사랑에 지치지 맙시다.”라는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말씀이 대표적입니다. 이는 진리이신 하느님의 말씀을 완고하게 따르라는 권고인 한편, 이를 위한 새롭고 적극적인 방식이 필요하다는 가르침입니다.

교회는 항상 진보하고 발전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리, 계명, 교회 가르침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성실히 따르고 이를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를 고민할 때 하느님이 원하시는 변화가 올바르게 이뤄질 것입니다. 자, 이제 분명해집니다. 교회를 보수와 진보로 나누는 것은 세속적인 기준의 표현입니다. 교회는 언제나 하느님의 말씀을 따르고 수호할 뿐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굳이 세속적 표현으로 이야기하자면, 교회는 하느님의 계명에 보수적이며 그렇기에 정의와 사랑으로 더욱 진보할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 역시 그렇습니다.

부러우면, 교사해 보실래요?



백근재 도미니코 사비오 | 서울대학교 청소년국 중고등부 교육부

저는 올해로 23년 차 교리 교사가 되었습니다. 20살 대학생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시작한 교사 생활이 어느덧 이렇게 오래되었습니다. 지금은 본당에서 직접 청소년들을 만나지는 않지만, 교구 청소년국 중고등부에 소속되어, 본당에서 청소년들을 지도하시는 선생님들을 위해 교안 작성과 강의 등을 하고 다양한 교육 연수에서 봉사하면서 교사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만나게 되는 주일학교 교사들은 처음 만나 인사를 하면 이름, 세례명, 본당 그리고 연차를 꼭 물어봅니다. 왜 필수 사항에 포함되는지 아직도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자기소개할 때 빠지지 않는 것이 교사 생활 연차입니다. 저는 교구 소속이다 보니 각 본당에서 활동하시는 다양한 선생님들을 만날 기회가 많은데, 언제부터인가 새로운 선생님들 앞에서 자기소개를 할 때 왠지 겸연쩍고 부끄러운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제 소개를 하고 나면 대부분의 선생님은 어떻게 그렇게 긴 시간 동안 교사 생활을 이어 올 수 있었는지 놀라워하십니다. 1~2년 하기도 벅차고 힘든데 그렇게 긴 기간 활동한 것이 ‘대단하시다.’, ‘고생 많으셨다.’, 또는 ‘존경스럽다.’ 등의 반응을 보이죠.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제 이야기에 무엇인가 큰 기대를 하며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부담스러워서 연차를 이야기할 때면 그냥 “오래 했습니다.”, “잘 기억이 안 나요.” 하고 적당히 둘러대곤 했습니다.

올해 초 ‘신입 교사 연수’에 봉사자로 함께하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새롭게 교사 생활을 시작하는 선생님들이 저를 보면서 긴 교사 생활 동안 제가 쏟은 시간과 들인 노력에 관심을 기울이기보다 ‘20년 동안 교사 생활을 하면서 하느님께 얼마나 많은 사랑과 은총을 받았을까?’, ‘청소년들과 함께한 시간 속에서 쌓은 수많은 추억과 잊지 못할 감동의 순간들이 얼마나 많았을까?’를 먼저 생각해 주면 좋겠다고 말이지요. 그래서 하느님께 큰 사랑과 은총을 받은 저를 부러워했으면 좋겠다고도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저도 더 자랑스럽고 당당하게 자기소개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사실, 처음 교사 생활을 시작했을 때 저는 제가 내어놓은 것이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여행에, 아르바이트에, 다양한 대외 활동 등 많은 경험을 하고 있을 때 저는 매주 미사와 평일 회합에 나가야 했고, 방학 때는 캠프, 피정 준비로 날마다 성당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다른 친구들에 비해 뒤처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곤 했습니다. 하지만 지나고 보면 늘 저는 다른 곳에서는 할 수 없는 더 큰 경험을 하며, 청소년 친구들을 통해 하느님께 더 많은 은총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 은총을 통해서 저는 조금은 더 바른 생각을 하는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또 그러한 은총의 체험을 많은 사람들과 오래 나누며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하게도 아직도 행복하게 교사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혼자서도 잘할 거야!



민범식 안토니오 신부 | 대신학교장

에릭 에릭슨의 '심리사회적 8단계 발달 모델'에서 제시하는 둘째 단계(1.5~3세)의 주요 과제는 '자율성 대 수치심과 의심'입니다. 이 단계에서 아동은 스스로 먹고 입고 배변 활동을 하면서 자율적으로 활동하는 것을 배웁니다. 자기 의지대로 움직이려는 아이를 균형 잡힌 지지와 관용으로 양육하면 아이가 자립심과 의지를 키우게 되지만, 의지가 꺾이는 경험을 계속하면 아이는 자기 능력을 의심하고 수치심을 느끼는 성격으로 성장하게 된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자율성이 제한 없는 자유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바라는 대로 움직이고 싶어 하지만 그것이 언제나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아이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단계에서 아이들은 자율성과 의지를 연습하면서 외부 세계와 자신을 통제하는 능력을 키워가게 됩니다.

자율성과 의지, 자립심이 건강하게 형성된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바를 잘 알고 원하는 바에 따라서 무언가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선택에 따른 결과를 책임 있게 받아들입니다. 반면에 자율적인 의지와 자립심이 약하게 형성되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수치심을 느끼고 나의 뜻보다 외부 상황에 수동적으로 의존하려는 경향이 많아집니다. 그런다고 마음이 편하지는 않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야.'라며 다른 사람이나 상황을 탓하다 보니, 매사가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하느님과 관계에서는 어떨까요?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하느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하느님께 내가 원하는 것을 편안하게 말씀드리고 그에 대한 하느님의 뜻이

어떤지를 여쭙고 계시나요? 아니면, '하느님께서 내게 바라는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굳이 말씀드릴 필요 없어.'라고 하면서, 진짜 속마음은 저 밑에 숨겨 두고 하느님께서 좋아하실 것으로 생각하는 것만 말씀드리시나요?

내가 바라는 것은 감추고 상대방이 좋아하리라고 생각하는 것만 표현한다면, 정말 친한 사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진실한 나 자신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과 더 친해지기를 원한다면, 용기를 내어 하느님께 솔직한 자신의 마음과 바람을 말씀드려 보세요. 그리고 하느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들어보세요. 하느님과 무관하게 내 마음대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솔직한 마음으로 하느님을 만나고 그런 나에 대한 하느님의 뜻을 찾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꼭두각시 인형처럼 당신 뜻대로만 움직이기를 바라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자유라는 큰 선물을 주셨고, 우리가 당신께 받은 여러 능력으로 좋은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기를 바라시죠. 하느님께서 주신 талан트를 수치심과 의심으로 꼭꼭 숨겨 두고만 있는 모습을 하느님께서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마태 25, 14-30 참조)

자녀가 수동적이고 의존적으로만 자라기를 바라는 부모는 없을 겁니다. 우리를 향한 하느님의 마음도 그렇지 않을까요?

"나는 너희를 더 이상 종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요한 15, 15)

상단 큐알(QR)코드를 통해 지난 연재글도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5월은 '성모 성월'입니다. 성모 성월 기도를 바쳐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기억할 선종 사제

- 1979년 5월 23일 이영일 베네딕토 신부(28세)
- 1979년 5월 25일 박일규 안드레아 신부(82세)
- 2020년 5월 24일 최선웅 야고보 신부(77세)

서울주보 알림 게재 신청은 서울주보 홈페이지(<http://cc.catholic.or.kr>)에서만 받습니다.

'한국 천주교회 통계 2024' 발행

한국천주교주교회의가 발행한 '한국 천주교회 통계 2024'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으로 전국 16개 교구에서 집계한 신자 수는 5,997,654명으로 인구 대비 1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본당 수는 1,789개이며 성직자 수는 총 5,751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수도자 수는 총 11,357명으로 남자 수도자 1,567명, 여자 수도자 9,790명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교회의 홈페이지(<https://cbck.or.kr>)-보도자료에서 볼 수 있습니다.

성모 성월 기도

-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고 내 구원자 하느님 안에서 내 마음 기뻐 뛰노네.
- 그분은 비천한 당신 종을 굽어보셨네. 이제부터 과연 모든 세대가 나를 복되다 하리라.
- 전능하신 분이 나에게 큰일을 하셨으니 그 이름은 거룩하신 분이시다.
- 그분 자비는 세세 대대로 그분을 두려워하는 이들에게 미치리라.
- 그분은 당신 팔로 권능을 펼치시어 마음이 교만한 자들을 흠으셨네.
- 권세 있는 자를 자리에서 내치시고 비천한 이를 들어 올리셨네.
- 굶주린 이를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시고 부유한 자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네.
- 당신 자비를 기억하시어 당신 종 이스라엘을 돌보셨으니
-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그분의 자비 영원하리라.
-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 기도합시다.

저희를 하느님 아버지께 이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님,
주님의 어머니 동정 마리아를
저희 어머니가 되게 하시고
저희의 친구자로 세우셨나이다.
비오니, 성모 마리아의 전구를 들으시어
저희가 주님께 간구하는 모든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소서.

◎ 아멘.

교구청 알림

1465차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미사>

때, 곳: 5월 20일(화) 19시, 명동대성당
금주의 '내 마음의 복녘본당': 서울대교구(북녘지역) 사리원 본당 / 문의: 02)727-2420

병원사목위원회 후원회 미사 안내

병원사목위원회 후원회원들을 위한 미사가 6월 13일(금) 오후 3시, 교구청별관 6층 경당에서 있습니다. 후원회원이 되어주신 분들에게는 선물을 보내드리오니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문의: 02)727-2073(www.hospitalpastoralcommittee.co.kr)

우리농 '씨앗에서 숲까지, 나무심기' 행사

대상: 우리농 활동가 50명 / 문의: 02)727-2275(홈페이지 wm.or.kr) 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
때, 곳: 5월 22일(목) 오전 10시30분, 노을공원(서울)
회비: 1인 1만원(1인 3~5그루 심기) / 준비물: 개인컵과 물, 튼튼한 운동화, 긴소매·긴바지, 모자, 손수건, 작은 돗자리, 도시락 지참(일화용품 금지)

복자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 기념미사

지난 4월 선종하신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2014년 직접 복자품에 올린 124위 순교복자 기념일을 맞이하여 아래와 같이 미사를 봉헌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때, 곳: 5월 29일(목) 오전 11시, 서소문 밖 네거리 순교성지(서소문성지 역사박물관)
집전: 교구장 정순택 대주교, 교구 주교단 및 사제단
문의: 02)269-0413 순교자현양위원회

2025년 부부의 희년

대상: 결혼생활 20년 이상 부부
때: 5월 28일~6월 18일 매주(수) 19시~20시30분
내용: 프란치스코 교황의 <사랑의 기쁨> 중 '혼인의 사랑' 강의, 혼인갱신식 / 문의: 02)727-2353

2025년 평신도 역량 강화를 위한 전례 교육

내용: '전례의 의미' 이해를 통한 적극적 미사 참여 및 평신도 역량 강화 / 강사: 김중수 신부, 전호엽 신부
강의 내용: 전례란 무엇인가?, 전례와 매일 기도, 미사 전례, 전례 주년 / 신청: 서울평단협 홈페이지(www.clas.or.kr) 공지사항 참고
때: 6월 3일~24일 매주(화) 19시30분~21시
곳: 가톨릭회관 3층 강당(명동)
문의: 02)777-2013 서울평단협 사무국

성서못자리

1) 제5차 성경 특강과 함께하는 튀르키예-그리스 성지순례
때: 6월 30일~7월 11일(11박12일) / 지도: 전영준 신부
주관: 성서못자리 / 문의: 010-6734-0190(문자 또는 카카오톡 문의) 심 소화테레사
2) 2025년 사목국 성서못자리 성서특강
주제: 역사와 성서-아는 것과 모르는 것, 그리고 믿는 것에 대해 / 접수: 5월 20일(화) 10시부터 사목국 홈페이지(www.samok.or.kr) 성서못자리 신청 통
해 사전 접수(선착순 400명)
때: 6월 26일(목) 10시30분~15시20분
곳: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대강의실(해화동)
강사: 이한석 신부(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교수)
회비: 4만원(점심식사 제공)
문의: 02)727-2379 사목국 성서못자리

장애인의 희년-교구장님과 함께하는 미사

때, 곳: 5월 25일(주일) 14시30분, 명동대성당 대성전
집전: 정순택 대주교 / 별도의 신청 없이 참석 가능
문의(주관): 02)727-2107 청소년국 장애인신앙교육부

2025 신구약 성경통독 회원 모집

강의: 조창수 신부 / 내용: 신구약 성경 전체
때, 곳: 매주(월) 13시~16시, 가톨릭회관 3층 강당(명동)
(온라인 라이브 동시 강의 / 재방송 1개월 수강 가능)
문의(신청): 010-8889-5425(문자) 가톨릭 성경&영성 아카데미

갤러리1898 전시 안내 / 문의: 02)727-2336

포토아티스트 사진전: 1전시실
르마르디 그룹전: 2전시실
이설 개인전: 3전시실
전시일정: 5월 23일(금)~6월 1일(주일)

본당 수도자 연수

주제: 희년 / 회비 없음(6월 3일 접수 마감)
때, 곳: 6월 10일(화) 14시~16시, 가톨릭회관 3층 강당
사목국 홈페이지(www.samok.or.kr)에서 신청
문의: 02)727-2063 사목국 교육지원팀

가톨릭 성음악아카데미 여름학기 모집(성음악위원회)

대상: 연령 무관, 초급~최고급 과정까지
접수 및 등록: 5월 1일(목)~23일(금) / 3개월 수업(6월~8월)
곳: 최양읍홀(전철 1·4호선 서울역, 2·5호선 충정로역)
문의: 02)393-2213~5(<http://www.casm.co.kr>)

여름 학기	실기전문 과정	오르간·피아노·반주·성악·합창지휘·작곡·CCM·관악기·현악기·바로크악기·국악
	양상블	그레고리오성가·성악(남·여)·플루트·현악·목관·리코더·클래식기타 등

인준단체 알림

모임

13지구 성령기도회 낮피정 / 문의: 010-9528-0023
강사: 양승국 신부(살레시오회) / 강의, 미사, 안수
때, 곳: 5월 20일(화) 13시~16시, 중앙동성당(주차 불가)

11강남지구 성령기도회 / 문의: 010-9519-1608
때: 매주(금) 19시~21시45분 / 정광열 신부(봉암성회)
곳: 역삼동성당 경환당(주차 가능) / 강의, 안수

평화의 모후 청년 셀 모임(파티마의 세계 사도직)
대상: 미혼 / 문의: 02)756-3473, 010-2759-3473
때, 곳: 매주(금) 19시30분, 가톨릭회관 516호

성체현시와 성모송 천 번 기도회
때, 곳: 5월 19일(월) 12시30분~17시, 삼성산 피정 집 대강당 / 문의: 02)874-6346, 010-3310-8826 삼성산성령수녀회·사랑의성령봉사회

성모송천수도회 십자가 도보 성지순례
때, 곳: 6월 21일(토), 죽림동 순교성지 외 3곳(춘천교구)
출발: 7시30분, 전철 2·4호선 사당역 공영주차장
문의: 010-3080-9104 / 사전 접수 필수

3지구 매월 셋째주(수) 무료 치유 피정 / 문의: 010-4444-1264
내용: 말씀치유기도, 찬양, 미사, 안수 / 점심 무료 제공
강사: 마진우 신부(대구교구 초전성당 주임)
때, 곳: 5월 21일(수) 11시~16시, 갈현동성당 지하강당

효소단식 성체신심 치유 피정(가톨릭 교수회)
영성과 디톡스로 자연치유력 회복
때, 곳: 6월 20일~23일·7월 18일~21일·7월 25일~28일,
성 도미니코 수도원(수유동) / 회비: 36만원(효소비 포함)
본당별 출장피정 신청 가능 / 문의: 010-9363-7784

성베네딕도왜관수도원 문화영성센터 탐방·성지순례
때, 곳: 6월 21일~23일(춘천 15곳·성내동성당)·8월 15일~17일(대구 17곳)·가톨릭회관 후문 출발, 8월 28일~9월 3일(백두산·브뤼기에르 주교 죽음의 길), 9월 20일~23일(제주도·추자도·차귀도 / 미사)
문의: 010-3807-1784 라 이시돌

2025년 서울대교구 성령쇄신 대피정
미사: 정순택 서울대교구장 집전
강사: 김재덕 신부, 마진우 신부
때, 곳: 6월 7일(토) 9시~17시30분, 동성고등학교 대강당(해화동) / 회비: 2천원(김밥·전자차 제공)
교통: 전철 4호선 해화역 1번 출구 100미터
문의: 02)867-7900 성령쇄신봉사회

토아올람 화요 치유 피정
때, 곳: 매주(화) 12시~16시, 가톨릭회관 7층
담당: 김중국 신부 / 문의: 010-5514-4077 회장
5월 20일 성시간·연도·위령미사 5월 27일 김현우 신부

지리산 피아골·성지순례 / 문의: 010-3712-8119

피아골 피정	6월 20일~21일, 7월 18일~19일
한국 수도원 순례	10월 14일~17일

성 베네딕도회 성경통독 8일 단식 피정
곳: 성 베네딕도회 화순 수도원

제138차	6월 13일(금)~21일(토)	문의: 061)373-3001, 010-6216-5346
제139차	7월 11일(금)~19일(토)	
제140차	8월 8일(금)~16일(토)	

‘푸른꿈 제주섬’ 이야기-제주 피정
강우일 주교와 함께하는 순례(성지·자연, 섬, 말씀초대)
대상: 개인, 가족, 단체, 본당(사목위원·구반장)
때: 6월 9일~11일·9월 18일~20일·10월 30일~11월 1일
곳: 제주 성 이시돌 피정의 집(한국통합사목센터·주최)
문의: 010-9670-9775, 010-7200-4567

2025년 마리아 사제운동 평신도 체나콜로 대피정
때, 곳: 5월 24일(토) 9시~17시, 동성고등학교 대강당(해화동) / 문의: 02)727-2489, 010-3136-7869
주제: “희망에 너희 마음을 열리라”(메시지 604번)
미사: 마리아사제운동 사제단 / 강의: 전진 신부(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수도회, 우이동 명상의 집 원장)
주최: 서울대교구 마리아사제운동(M.S.M)

제주 면형의 집 피정(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수사·신부들과 함께 제주 성지·역사·생태 순례와 성무일도·미사를 함께하는 산들평화 순례 피정
때: 생태순례 6월 15일~17일(추자도 포함)·7월 31일~8월 3일(우도섬 포함)·9월 20일~22일·9월 26일~28일·10월 21일~23일·11월 2일~4일, 추자도 포함 성지순례 5월 26일~29일·6월 1일~4일
문의: 064)756-6009, 02)773-1463

제주 성 이시돌 자연순례 피정
성 이시돌 목장 내 성지에서 섬과 성지순례 제주여행, 자연순례(2025년 피정 접수중)
대상: 개인, 가족, 본당·구반장, 소규모 모임
때: 추자도포함 제주전체 성지순례 6월 21일~23일·7월 1일~4일·9월 7일~10일·9월 18일~21일·10월 25일~28일, 자연순례 6월 12일~14일·7월 12일~14일·9월 1일~3일, 제주섬 우도 포함 7월 18일~20일·7월22일~24일(차귀도)·7월 26일~29일·8월 1일~3일·8월 7일~9일·8월 11일~13일 / 문의: 064)796-4182, 02)773-1455 제주 자연 피정

성 도미니코 선교 수녀회 피정
곳: 도미니코 피정의 집(주최, 황성) / 010-3340-0201

하느님, 바람, 나(힐링 피정)	5월 23일(금)~25일(주일)
효소 단식	5월 29일~6월 1일, 6월 26일~29일
안소근 수녀와 함께하는 구약여행 예레미야서	6월6일~8일
카타리나의 집(개인·자체취사)	문의: 010-9715-1203

예수마음기도 영성수련
곳: 문산 예수마음 피정의 집(주최)
문의(접수): 010-4906-5722, 031)953-6932

1박2일	6월 28일(토)~29일(주일), 8월 30일(토)~31일(주일)
2박3일	6월 23일(월)~25일(수)
3박4일	6월 5일(목)~8일(주일), 7월 3일(목)~6일(주일)
8박9일	6월 12일(목)~20일(금), 7월 10일(목)~18일(금)
40일	10월 14일(화)~11월 22일(토)

예수고난회 서울 명상의 집 피정 / 문의: 02)990-1004

개방의 날	매월 첫번째(금) 6월 6일 10시~15시30분
토요성모신심 기도와 미사	6월 21일 10시~12시
다네이영성수련	6월 27일~29일(2박3일)
대침묵 피정	7월 25일~27일(2박3일)
수도 개방 미사	매주(수) 15시, 300주년 기념경당
단체 피정(자체·위탁) / 개인 피정 가능	

교육

수제 묵주 조각 교육(가톨릭묵공예)
접수: cafe.naver.com/rosary10 / 문의: 010-5234-5044

스테인드글라스 교육(가톨릭스테인드글라스회)
홈페이지(lukeglass.com) 참조 / 문의: 02)324-0852

성체조배교육
때: 6월 7일~7월 26일 매주(토) 10시30분~13시30분(8주간) / 문의: 010-9742-3842, 02)984-4801
곳: 스승예수의제자수녀원(주최, 전철 4호선 미아역)

하느님 현존 수련·자비명상(씨튼 연구원)
때, 곳: 5월 23일 14시~25일 14시, 씨튼영성센터(성북동) / 문의: 010-8441-2353, 02)744-9825

새천년복음화학교 영성교육
주제: 요셉과 희망 / 말씀: 조성풍 신부
때: 6월 1일(주일) 13시30분~16시20분
곳: 가톨릭회관 7층 강당 / 문의: 02)753-8765

예비자 통신교리(우편·사이버·신자재교육)
주소: 서울시 중구 장충단로 188, 분도빌딩 506호
주최: 가톨릭교리통신교육회 / 회비: 1만원
문의: 02)2274-1843, 4 / 홈페이지: www.cdcc.co.kr

아버지학교 지원자 모집(서울대교구 4기)
때, 곳: 6월 1일~29일 매주(주일) 13시30분~18시30분(5주간, 세곡동성당) / 회비: 10만원
문의(접수): 0505-503-7080(sufather2009@naver.com)

예수살이공동체 2025년 봄 배움제자교육
복음적 인생관을 찾아가는 3일의 여정
때, 곳: 6월 6일(금)~8일(주일), 노들담교육관(종로구 가회동) / 대상: 20세 이상 천주교 신자
회비: 15만원 / 문의(접수): 010-6750-2144(www.jsari.com)

서울대교구 가정선교회 영성학교
강사: 김연범 신부, 전삼용 신부, 송봉모 신부, 박효철 신부, 김현우 신부, 김재덕 신부, 김성대 신부, 박현민 신부, 이창진 신부, 한철호 신부, 이현주 회장 / 졸업미사: 구요비 총대리 주교
때, 곳: 5월 20일·27일·6월 17일·24일(화) 12시30분~16시30분, 가톨릭회관 1층 강당 / 회비: 월 3만원
2025년 하반기 영성학교: 7월·9월~10월, 시간·장소 동일 / 문의: 0505-091-0523, 02)777-1773
제작: 신협 131-022-652844 가정선교회 / 당일접수 가능

제26회 가톨릭평화방송 여름방학 영어캠프
문의: 02)734-0999(www.pbccamp.com)

캐나다	토론토대 영어캠프, 캐나다 및 미동부 탐방
미국	국내 유일 미국 최고 명문 UCLA 영어캠프(디즈니랜드, 실리콘밸리 탐방)
영국	국내 유일 옥스포드 영어캠프(소흥턴 토트넘·서윙햄투어)

서강대학교 신학대학원(주간) 신입생 모집
원서접수: 5월 21일(수)~30일(금)
전형일: 6월 14일(토) / 문의: 02)705-8668, 9

모집 전공	신학	신앙과 삶이 하나 되는 통합적 신학과 함께 걸어가는 신학 추구
	철학	삶으로서의 철학을 통해 삶의 문제 해결과 고봉받는 인간 치유
	영성·철학상담	사회문제에 적극 개입하여 실천적 대안 모색

모집

베아투스 남성합창단 단원 모집
대상: 성인 남성(시니어 환영) / 문의: 010-3709-7956

카리타스 합창단 모집 / 문의: 010-2686-0185
때: 매주(월) 18시30분 / 55세 이하 남녀 교우

무지카사크라 소년합창단 신입단원 모집

명동대성당 주일 17시 미사 / 연습: 매주(화) 19시30분
대상: 초2~5학년 남자(가톨릭 신자) / 010-7242-6027

미사

평양교구 신우회 월례미사 / 문의: 02)727-2056
때, 곳: 5월 28일 11시, 명동대성당 문화관 2층 소성당

미래사목연구소 후원회 미사

때, 곳: 5월 27일(화) 11시, 미래사목연구소(김포시 고촌읍 신곡로 134) / 문의: 031)986-7141

안내

‘돌아보며 깨닫기’ 영성심리상담

문의(예약): 010-3173-2665 최영민 신부(예수회)

시스피나 남성합창단 연주회

때, 곳: 5월 22일(목) 19시30분, 서울성공회대성당
문의: 010-4368-0011 시스피나

제주도 관광

문의: 010-4566-6476
제주순례기사회에서 가족, 단체, 골프수송, 관광 및 성지안내차량, 호텔, 펜션 예약 가능

볼길 심리상담연구소(마리스타 교육사회)

전문상담: 청소년, 개인, 가족, 단기부부상담 / 첫회 무료
곳: 합정 / 문의(예약): 010-8981-8356 (전화상담 가능)

성빈센트정신분석상담센터

대상: 성인, 청소년, 아동, 부부, 집단상담
내용: 대인관계 갈등, 성격문제, 우울, 강박, 정서불안
곳: 성북구 아리랑로62 / 문의: 010-4261-1113
차영임 수녀(성빈센트드블자비의수녀회)

가톨릭대학교 상담심리대학원 상담센터

성인 심리상담 및 검사, 아동 놀이치료
곳: 서울성모병원 성의회관(서초구) / 회비: 실습생 1만원, 전문가(1급 8만원·2급 5만원), 놀이치료 6만원
문의: 02)3147-8814(gcounseling-center.catholic.ac.kr)

명동 전진상 영성센터 전문심리상담

내용: 개인상담 정서불안·우울·분노·성격 등의 어려움, 부부 및 가족상담 성격차이로 인한 부부 갈등·의사소통·자녀문제로 인한 갈등, 스트레스 직장내 어려움·대인관계, 종합심리검사 진행
문의: 02)726-0700(www.jiscen.or.kr)

바보나눔터와 함께 사랑을 전하세요

‘김수환 추기경님’의 나눔을 이어가고 싶은 가게, 식당, 병원, 학원 등 중소상공업체라면 어느 곳이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김수환 추기경님 현판을 보내드립니다
신청 문의: 02)727-2506, 7 바보의나눔

천주교 서울대교구 카프성모병원

알코올전문병원, 중독증점 입원 및 외래 통원 치료(도박·인터넷 게임) / 홈페이지: www.karf.co.kr
우울, 불안, 수면 장애 등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때: (월~금) 9시~17시 / 문의(진료 입원): 031)810-9200
곳: 고양시 전철 3호선 백석역 7번 출구 5분 거리

천주교 인천교구 운영 봉안당 접수

곳: 천주교 인천교구 묘원(인천 서구 드림로 472)
접수: 인천교구청 방문 및 온라인 접수
서류: 교적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사본
봉안기간: 60년(30년 봉안 후 30년 연장 가능)
봉헌금: 400만원·500만원 / 준공: 2025년 상반기(예정)
문의: 032)765-7251(http://haneul.caincheon.or.kr)

도미니코 수녀원 영성센터 / 문의: 010-5604-1882

전문	개인(우울·공황·불안·강박·트라우마·해리 심리치료 등), 가족·부부갈등, 종합심리검사
따뜻한 기도모임	매일 첫째·셋째주(월) 19시30분~21시30분

진애인 심리상담센터

곳: 명동 / 02)587-9207(http://jinaein.com) 토요상담 가능

전문 심리상담	불안, 우울, 분노, 공황장애, 강박적 행동, 부부, 가족간의 갈등, 대인기피 등 마음투자 정부지원금 신청 해당기관
---------	---

유관단체 알림

베리타스심리상담센터 / 문의: 02)776-7726

매체심리 상담전문	가톨릭회관 501호(명동)
개별 상담	우울, 중독증상 및 정서적·심리적 어려움이 있는 시니어·아동·청소년·성인
교육	건강한 가족공동체 수업 매주(수) 10시~12시(7회) 수시 모집, 미술심리상담사 자격교육과정 평일 팀-5월 23일~6월 27일 (금) 10시~15시(6회)·주말 팀-5월 24일~6월 28일 (토) 13시~17시(6회) / 자세한 정보는 다음카페(cafe.daum.net/caritas501) 참조

각종모임

황성 도미니코 피정의 집 주방 근무자 모집

문의: 010-3401-5541

구르실로 회관 주방직원 모집 / 문의: 02)337-8588

대상: 경험자 우대(계약직) / 서류: 이력서, 교적 사본
우편 및 이메일(cursillo@catholic.or.kr) 접수

명일동성당 사제관 주방근무자(계약직) 모집

대상: 세례받은 지 3년 이상된 교우
서류: 응시원서(서울대교구 홈페이지 직원 모집 안내에서 다운로드), 교적 사본, 본당 주임신부님 확인서 5월 25일(주일)까지 우편(우 05235,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56길 28) 및 이메일(belle14@seoul.catholic.kr) 접수
서류 전형 후 개별 면접 / 문의: 02)481-0211

장애영유아 거주시설 디딤자리 직원 모집

간호사 및 물리치료사 각 1명 / 문의: 02)987-6009
디딤자리 홈페이지(http://www.didimjary.com) 참조

대치2동성당 방호원(계약직) 모집

분야: 방호원 1명(계약직) / 업무: 시설관리 및 미화 등
대상: 신자로 세례받은 지 3년 이상된 분 / 이메일 문의
서류: 응시원서(서울대교구 홈페이지 직원모집 안내에서 다운로드), 교적 사본, 본당 주임신부님 확인서 5월 31일(토)까지 이메일(pasa69@seoul.catholic.kr) 및 방문·우편(우 06282, 서울시 강남구 도곡로 540 대치2동성당) 접수 / 1차 서류, 2차 면접(개별 연락)

목동성당 사무장 모집

분야: 사무장 1명(계약직 근무 후 정규직 전환 가능)
대상: 세례받은 지 5년 이상으로 사무행정·회계·PC(한글·엑셀) 가능한 분 / 이메일 문의
서류: 응시원서(서울대교구 홈페이지 직원 모집 안내에서 다운로드), 교적 사본, 본당 주임신부님 확인서 5월 28일(수)까지 방문·우편(우 08011, 서울시 양천구 목동서로271 목동성당 사무실) 및 이메일(sapir81@seoul.catholic.kr) 및 접수 / 1차 서류 전형, 2차 면접(개별 연락)

서울대교구 삭곡개성당 방호원 모집

분야: 방호원 1명(계약직) / 시설관리·방호·미화 등 전반적인 업무(운전면허 1종 보통 소지자)
대상: 세례받은 지 3년 이상된 근면성실한 분
서류: 응시원서(서울대교구 홈페이지 직원 모집 안내에서 다운로드), 교적 사본, 본당 주임신부님 확인서, 자격증 사본 / 문의: 02)873-2333
5월 21일(수)까지 방문·우편(우 08785, 서울시 관악구 삭곡개로 79) 및 이메일(uld@seoul.catholic.kr) 접수
1차 서류 전형, 2차 면접(해당자 개별 연락)

가톨릭출판사 직원 모집 / 문의: 02)6365-1829

서류: 입사지원서(홈페이지-본사양식)
자세한 내용은 본사 홈페이지(www.catholicbook.kr) 직원 모집 메뉴 반드시 참조 / 이메일(cphhr@catholic.or.kr) 접수

모집 분야	담당 업무
편집국	전문 편집
경영관리국	재무회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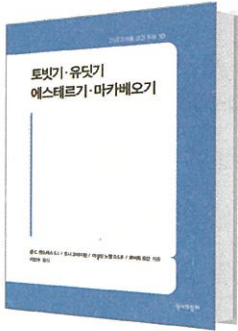
서울대교구청 직원 모집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https://aos.catholic.or.kr) 직원 모집 참조 / 이메일 문의

전산정보실	DB관리(PostgreSQL, MSSQL) 업무 가능한 분 교구사무원 1명(계약직) / 6월 3일(화)까지 이메일(aoinsa@seoul.catholic.kr) 접수
특수사목 사제관(성북구)	주방근무자 1명(계약직) / 6월 3일(화)까지 이메일(aoinsa@seoul.catholic.kr) 접수
성 엠베르 센터	주방근무자 1명(계약직) / 채용시까지 이메일(imbert@seoul.catholic.kr) 접수

수도회 성소모임	때	곳	문의
성모 자헌 애덕의 도미니코 수녀회	6월 1일(주일) 14시	수녀원(부천)	010-5166-1275
성 베네딕도회 요셉 수도원	수시	수도원	010-4241-1210 성소 담당자
예수수도회	수시 / 전화 상담 후	수도원(서울)	010-7485-1964
예수의 가리파스 수녀회(서울관구)	5월 25일(주일) 10시~15시	서울관구 본원(전철 2·4호선 사당역 1번 출구)	010-7542-7845
작은예수수녀회	수시	수녀원(군자동)	010-8867-3217
천주교서울제천교회	수시	선교회	02)749-4596, 010-2749-4596
티 없으신 마리아 성심 수녀회	수시	가톨릭회관 516호	010-3068-0325 서울, 010-2969-5119 부산
한국순교복자빨마수녀회	수시	전화 상담 후 결정	010-9199-4995

서울주보 '알림'에 게재되는 내용에 대한 책임은 각 신청 단체에 있습니다



신간

21세기 제롬 성경 주해 10
토빗기·유딧기-
에스테르기·마카베오기

존 C. 엔드레스 S.J.: 토니 크레이븐 외 지음
성서와함께 | 360쪽 | 2만9천원
문의: 02)822-0125

제2성전 시기(토빗기, 유딧기, 에스테르기의 배경)와 신구약 중간 시기(마카베오기)의 배경은 여러 문화가 서로 충돌하며 문화 융합이 이루어지던 때로 유대인의 정체성 유지가 중요한 쟁점이었다. 이 주해서는 토빗기의 라파엘 동행, 유딧기의 여성 판관성, 에스테르기의 숨겨진 하느님, 마카베오기의 성전 수호와 순교 신앙등을 중심으로 하느님의 구원과 섭리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한다.



신간

축복받은 성경 읽기
이사야서

가톨릭성서모임 엮음
성서와함께 | 84쪽 | 4천원
문의: 02)822-0125

《축복받은 성경 읽기》는 창세기부터 요한묵시록까지 성경 본문을 충실하게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쉬운 문제집' 낱권 시리즈다. 별다른 주석서나 해설서가 없어도 성경만 보면 풀 수 있는 쉬운 문제들과 말씀의 봉사자나 지도자가 없어도 누구나 진행할 수 있는 단순한 구성으로, 개인 혹은 단체에서 성경 읽기 프로그램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신간

〈찬미받으소서〉의
녹색 십계명

조슈름 아이작 쿠레타담 지음
파스카 | 248쪽 | 1만5천원
문의: 02)762-1194

이 책은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회칙 〈찬미받으소서〉의 핵심 주제를 해설하고, 교황 권고 〈하느님을 찬미하여라〉의 일부 내용을 보완하여 생태와 환경에 관한 길잡이를 제공한다. 환경 보호가 과학적인 한계 내에서만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우리 공동의 집'인 지구와 자연 환경을 돌보기 위해 모두가 함께 책임지고 참여해야 할 문제임을 강조한다.



축제

2025 HYD 제23회
젊은이 성령 축제

때, 곳: 5월 25일(주일) 10시, 인천교구청
보니파시오 대강당 / 참가비: 1만원(점심 제공)
문의(참가신청): 010-7778-0525(문자) 한국가
톨릭젊은이성령쇄신연합

"여러분의 희망이 성령의 힘으로 넘치기를 바랍니다.(로마 15:13)" 젊음으로 찬양의 삶을 살아가는 '한국 가톨릭 젊은이 성령 쇄신 연합'은 각 교구간의 교류와 젊은이 성령 쇄신의 활성화, 그리고 지역 성화를 위해 <제23회 젊은이 성령 축제>는 Holy spirit Youth Day>를 개최한다. 이번 축제는 5월 25일(주일) 오전 10시, 인천교구청 보니파시오 대강당에서 열린다.



'교구장님과 함께하는 성체조배' 참여 이벤트

6월 함께 기도하는 밤

[6월 이벤트 안내]

- 성체조배: 6월 5일(목) 19시40분, 주교좌 명동대성당
- 이벤트 응모 기간: 6월 12일(목)까지 / 이메일(thursnight@catholic.kr) 응모

- [시상] 함께상: 인증샷 일러스트 엮서 10매, 도서 《함께 기도하는 밤》 2권
- 기도상: 도서 《함께 기도하는 밤》(가톨릭출판사, 이영제 신부 지음) 2권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는 밤', "이 뜻깊은 시간을 많은 청년들과 나누고 싶어요." 매월 첫 목요일 밤을 가장 특별하게 보내는 방법! '교구장님과 함께하는 성체조배'에 교우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사랑하는 짝꿍과 함께, 예수님을 바라보며 마음을 어루만지는 밤을 보내보세요. 그 어느 때보다도 총만해지는 마음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6월 '예수 성심 성월'을 맞이해 특별한 추가 이벤트가 마련되어 있으니, 많이 참여해 주세요! 성체조배 참석 후 짝꿍과 함께 찍은 인증샷과 느낀 점을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정성이 담긴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큐알(QR) 스캔





제2시대문·미포지구 대표본당

진주교연희동성당

http://www.yeonhui.or.kr

03727 시흥시 시대문구 연희로 64-14

본당사무실 : 323-4450~1, 4456

FAX : 336-2233

지구장신부 : 최성기(헨리코)

주 임 신 부 : 유시창(베드로)

부주임신부 : 백종원(마르코)

보좌신부 : 최원영(스테파노)

연령회장 : 이범지(루시아) 010-6288-1683

주일 미사	• 토요일 : 오후 3시 (초등부), 오후 6시 • 주 일 : 오전 7시, 오전 9시, 오전 10시 30분 (중고등부반대), 오전 11시 (교중) 오후 6시 (청년 20, 청년 30)	유 아 세 례	흠수달 첫째 주일 오후 4시 30분
		혼 인 면 담	매월 셋째 주 일 오후 3시
평일 미사	• 월요일 : 06시 화요일 : 10시, 19시 수요일~금요일 : 06시, 10시 토요일 : 06시	성모신심미사	매월 첫째 토요일 오전 10시

“미소짓고, 인사하고, 칭찬하자!”

◎ 희년 맞이 연희동성당 바자회

희년을 맞이하여 사랑과 나눔 실천을 위한 바자회를 개최합니다. 수익금은 기부하여 소외된 이웃의 삶에 따뜻한 손길이 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 일시 : 오늘(5/18) 오전 10시 ~ 오후 4시

• 장소 : 성당 마당 및 교육관

• 쿠폰 판매 장소 : 성당마당(본부석)

• 후원 단체 : ① 이주여성그룹홈 ② 한사랑공동체
③ 바오로교실(장애인 보호작업장·주간보호시설)

※ 오늘(5/18)은 오전 7시, 9시, 오후 6시 미사가
봉헌되며, 9시 미사가 교중미사로 봉헌됩니다.

◎ 성소후원회 미사

• 일시 : 5월 20일(화) 오전 10시

※ 미사 30분 전부터 묵주기도를 시작합니다.

※ 10시미사 후 201호에서 회합이 있습니다.

◎ 병자영성체

• 일시 : 5월 23일(금) 오전 10시 출발

◎ 여성 구반장 야외행사

• 일시 : 5월 20일(화) 오전 8시 성당 출발

• 장소 : 청평사

◎ 남성울프레이

• 일시 : 5월 25일(주일) 오전 11시 교중미사 후 301호

◎ 여성울프레이

• 일시 : 5월 27일(화) 오전 10시미사 후 304호

◎ 상지의좌 Pr. 레지오 선서식

• 일시 : 5월 27일(화) 오후 7시 40분

• 장소 : 교육관 302호

• 선서자(2명) : 김재윤 바오로, 황재천 시몬

◎ 문화학교(주일학교) 학생 모집

• 수강과목 : 바이올린, 통기타/우쿨렐레, 미술, 한글캘리그래피

• 기간 : 6월 14일(토) ~ 8월 30일(토)

매주 토요일 수업

• 접수 : 5월 30일(금)까지

• 접수/문의 : 문화학교 오픈채팅방에 신청
아네스 (010-4538-5665)



◎ 오라떼 음악회

• 일시 : 5월 31일(토) 오후 4시 30분 / 대성전

※ 5월 31일(토) 오후 3시 초등부미사는 소성전에서
봉헌되고, 오후 6시 특전미사는 없습니다.

◎ 초등부 주일학교 가족 운동회

• 일시 : 6월 7일(토) 12시 ~ 오후 5시

• 장소 : 서대문 문화체육회관 대체육관

• 준비물 : 개인 텀블러, 운동화

※ 점심 미제공, 체육관 내 간식 금지

※ 당일 초등부 미사는 체육관에서 봉헌됩니다.



◎ 교무금 책정 현황 (2025. 5. 11)

총세대	책정세대 (책정률)	납부세대 (납부율)	2024년 책정률	2024년 납부율
2,009	650 (32.4%)	607 (30.2%)	42.9%	41.6%

교무금계좌번호 우리은행 137-04-110875

※ 교무금 자동이체 신청해서 납부 바랍니다.

교무금은 반드시 교무금 책정자 이름으로
송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헌금 (5월 5일 ~ 5월 11일)

김진웅	오만원	곽선모	오천원
손은지	일십만원	변민정	일십만원
박명숙	오만원	정수진	칠만원
이영주	삼십만원	김희진	오만원
홍선호	오만원	한인경	이십만원
양경남	일만원	이지만	일만원
이지원	일만원	김경식·김동희	일십만원
김성태·김은주	일십만원		
미라클합창단	일십만원		

◎ 우리들의 정성 (부활 제4주일)

교 무 금 10,699,000원
주 일 헌 금 7,960,030원

입당	139	봉헌	220, 216	성체	499, 501, 502	파견	131
----	-----	----	----------	----	---------------	----	-----



저의 임금인 신하느님 영영세세 당신 이름을 찬미하나이다